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우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4월 17일(목) 제 3078호

새만금청, 재정집행 '속도' 투자기업 기반 다진다

SOC 조기집행 점검
 재정 1,226억 편성
 전년비 154.5% 증액
 2~3권역 인프라 증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25년 SOC 등 중점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6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권역 민생경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흥남 차장 주재로 마련됐다. 이날 조 차장은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차장은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재정집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전년 대비 154.5% 증액된 1,22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구축을 위해 △핵심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업 적기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공사·용역의 사전 준비기간 단축 및 선급금 지급 확대, 보조·출연사업의 신속 교부, 장비·물품의 조기 구입 등 지출유형별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별 재정집행현황을 심도있게 점검한 결과,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이 당초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차장은 "향후 새만금 2~3권역 내부개발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와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폐수·전력인프라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국 시·도의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공동 결의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제안
 전북 유치 성공에 뜻 모아
 정부에 전방위 지원 촉구

전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제안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고, 전북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 시·도의회가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것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의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의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

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제 위상을 높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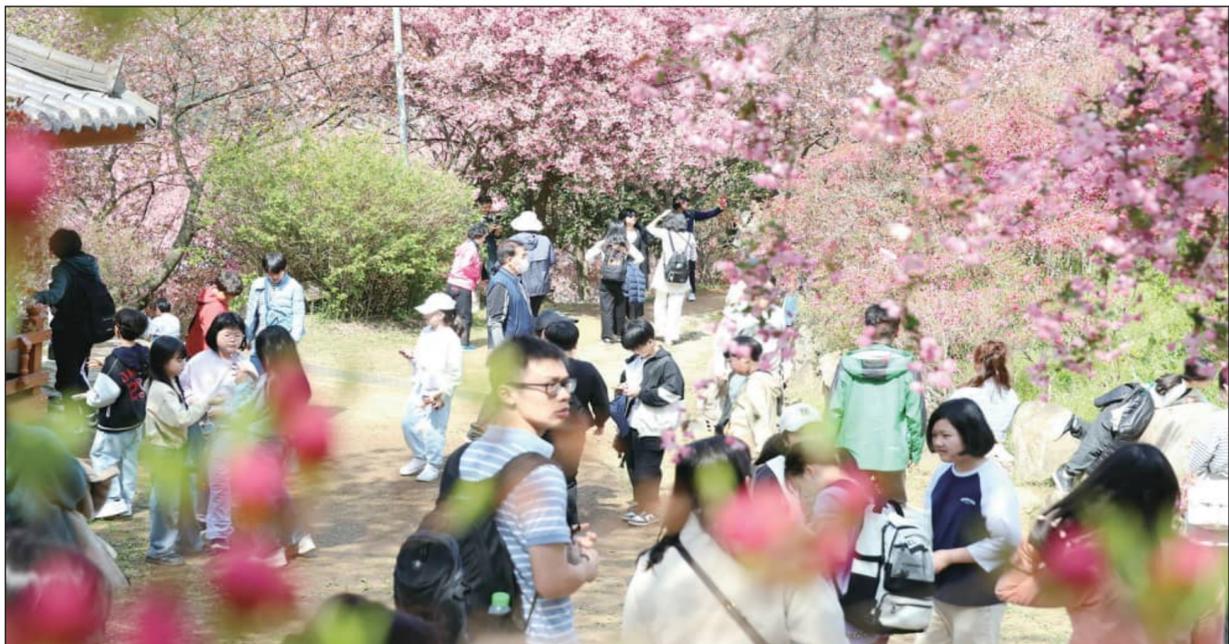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일 때"이며, "지방과 중앙이 손잡고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승우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

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주 하계올림픽은 도내뿐만 아니라,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연대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근 기자



완산공원 꽃동산 주말 절정

전북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 약 1만5000㎡ 규모에 철쭉과 겹벚꽃, 꽃해당화, 황매화 등이 4월의 꽃샘추위를 이기고 이번 주말이면 만개할 전망이다. 절정에 이른 꽃동산에 전국에서 상춘인파가 꽃의 향연을 즐기기에 불철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사진=완산구청>

'전북청년 두배적금' 만기 277명 도내 청년 첫 결실

올 1300명 모집 10.8:1 경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시행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첫 만기를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됐으며, 만기를 채운 청년 277명이 수령하면서 사업의 첫 결실을 맺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도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도는 "2023년 첫 사업 참여자 300명 가운데 277명이 2년간의 납입 기간을 모두 채웠다"며 "이들은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도비 지원금 2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중도 해지한 인원은 23명으로, 중도해지율은 약 7.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올해 진행 중인 2025년도 두배적금 사업에는 1,300명 모집에 14,016명이 신청해 약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순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바이오산업 국가 공모 274억 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서 큰 성과를 획득하며 바이오 메카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올해 1분기 바이오산업 분야 공모사업에서 총 4건이 선정, 총사업비 274.32억 원(국비 163.66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도의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는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공모사업 및 '26년 국가예산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분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1단계' 사업 선정(총사업비 183.32억 원, 국비 91.66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사업 선정(총사업비 38억 원, 국비 38억 원) △보건의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도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선정(총사업비 33억 원, 국비 21억 원) △부처합동(법무부, 행안부, 농림부, 중기부) 추진 공모사업인 '2025년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 선정(총사업비 20.22억 원, 국비 13억 원) 등이다. 현재 5건(국비 793.25억 원)의 사업이 선정 심사 중이다. /김영태 기자

*군산의 미래가 모이는
기회의 땅*

디오선시티 퍼스트

6,000여세대의 메이저 브랜드 주거타운과
전북 유일의 롯데몰 등이 어우러진 디오선시티!
칠갈공원과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펼쳐진 디오선시티!
새로운 명품복합도시로의 기대를 만들어겠습니다.

교육·문화·쇼핑 및 주거 등 명품복합도시

디오선시티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 또는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광주5·18 정신 헌법 전문 포함해야”

“동학혁명·광주민주화운동 역사적 정신 계승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不義)한 국가권력에 저항



윤준병 의원

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패·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 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뿐만 아니라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와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 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항일운동의 시발점이자 우리 근대를 만들어가는 반봉건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항일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이후에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평등의 핵심 가치를 지켜온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수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멈춰져 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국민의힘, 대선경선 8명 압축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결정

국민의힘이 16일 대선 경선후보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8명의 후보를 압축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결과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7나디순)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성원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당원투표 50%,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의 비중으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해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일과 2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최종 후보자를 3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한병도 의원, 대선 이후 신속 국정 안정화 법안 발의

“비상계엄 이후 공백 장기화 차기 정부 제도적 보완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탄핵 등 권위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같은 법안 발



한병도 의원

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권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전북도, 세계 홍역 유행 도민 안전 당부

환자 35명 중 23명 해외 감염 의뢰기관 방문 2회 접촉 권고

전북자치도는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홍역에 대한 특별 예방접종 및 주의 사항을 내세우며 도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도는 “현재 국내에서도 해외 홍역 유입 환자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전 도민 예방접종(MMR)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역은 기침·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또 홍역은 ‘발열, 콧물, 기침, 결막염, 구강 내 반점, 전신 발진’이 주요 증상이며, 면역이 불충분할 경우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5명(4월 5일 기준)으로 이 중 65.7%에 해당하는 23명은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 후 확진된 사례다.

이로 인해 가정과 의료기관 등에서 12명의 2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 명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고,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홍역 퇴치국으로 WHO 인증을 받았다.

전북은 2020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해외 교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방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전북자치도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에게 홍역 예방접종(MMR) 2회 접종을 강조”하며 “미접종 또는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6주 전 의료기관



을 방문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생후 1세 미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낮아 홍역 유행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국 2주 전(생후 6~11개월) 조기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로 먼저 연락한 뒤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 여부를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에서도 도내 홍역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작...내란종식·민생회복 기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성명 국민관심참여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되었다면서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종식·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오늘의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국민 여러분이 열어주신 것으로 국민의 승리이자 처참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작위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성명은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불법 계엄이 초래한 내란 상황이 일단락 되었지만 내란 동조 세력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윤석열의 폭주각시로 내란 계엄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렸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대놓고 ‘내란 대행’을 자임하며 윤석열의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세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소극적이고 신중하고 현실적 유지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윤석열 내란에 올라탄 한덕수 대행의 교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더 큰 대한민국의 시작이 48일 남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 3인의 후보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내란 종식·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공직자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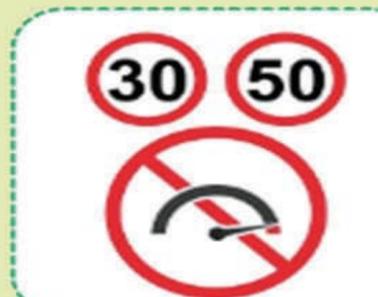
운전하기 전 음주는 절대 금지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



졸음운전 절대 금지



안전속도 반드시 지키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킵시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북 교육계 '노란 물결'

우전중 학생자치회 등 도내 학교·교육청 곳곳 자체 추념 활동 이어져

올해로 11주기가 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자 전북 도내 학교와 교육청 곳곳에서 노란 물결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전주우전중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를 통해 세월호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세월호 추모 리본을 나눠주며 철망에 묶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날을 다시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고, 정문 위에 '잊지 않겠습니다'는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다.

행사를 운영한 이모 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세월호에 대해 다시 기억해 보고, 잘 모르는 학생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우리가 느끼는 참사에 대

한 아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우전중 이도윤 학생회장은 "참사에 대한 아픔을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의미가 컸다"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안전 교육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 용성중학교도 교문에서 세월호 추모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 학급 및 방 송실에서 추모를 위한 동영상 시청과 추모 노래를 방송했다.

용성중 구성원들은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당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북교육청에서도 세월호 참사 제11주기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념식을 진행했다.

추념식에는 유정기 부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전북학생의회 대표 학생, 교육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안전 결의



올해로 11주기가 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자 전북 도내 학교와 교육청 곳곳에서 노란 물결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사진=전북자치도교육청>

문 낭독과 추모 리본 나눔 등이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날을 '학교 안전의 달'로 지정·운영하며, 도내 각급학교에서도 자체 추념 활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세월호를 기억한

다는 것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학생 안전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다짐"이라며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주말 '꽃잔치'

1만5000㎡ 규모·1만 그루 철쭉·겹벚꽃 주말 절경 전국서 상춘객 방문 전망

이번 주말이면 전북자치도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이 봄꽃 개화가 만발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겹벚꽃과 진달래, 철쭉 등 다채로운 봄꽃이 만개하면서 방문객 수가 약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 꽃샘추위로 인해 만개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번 주말에는 만개한 봄꽃을 즐기려는 더욱 많은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 1만5000㎡ 규모의 완산공원 꽃동산에는 철쭉과 겹벚꽃,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1만여 그루의 꽃나무가 식재돼 있어 해마다 봄이 되면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인근에 거주하던 시민이 1500여 분을 심고 40여 년 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공간으로, 이곳을 가꾸는 과정에서 조경업자의 매매 유혹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해당 시민은 이곳을 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에

게 즐거움을 줘야겠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전주시는 이 꽃동산을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전주시는 매일 이후 각종 꽃나무를 옮겨 심고 추가로 식재했으며, 전망대와 파고라, 산책로 등 편의시설까지 설치한 후 지난 2010년 4월부터 무료로 이곳을 개방해 왔다.

특히 올해 꽃동산 방문객을 위해 시설물 도색, 데크 계단 정비, 수목 전지 등을 실시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생은 물론 가족단위 시민,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방송 촬영팀 등이 꽃동산을 찾아 봄날의 풍경을 만끽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올해 개장한 완산벚꽃과 꽃동산을 함께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완산공원이 전주 관광의 대표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회계담당자대상 맞춤형 컨설팅 자립의사자화참여 고취 계기로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의지 및 사회참여를 고취시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1% 달성 및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위해 39개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선구매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북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협력해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

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구매 품목과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우선구매 실적은 국정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주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실적관리를 통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표액을 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의지 및 사회참여를 고취시키 나가기로 했다. <사진=전주시>

전북환경청, 도내 5개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

다이아지는 등 총 8종 생활용수 안전성 확보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용담호, 옥정호, 동화댐, 월락(남면), 무주 도내 5개 상수원 주변 지역의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잔류량 조사는 상수원 주변 토양과 수질을 검사해 농약성분의 유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오염대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은 용담호, 옥정호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그간 조사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는 지역주민의 먹는물 등 생활용

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광역상수원을 포함한 5개소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별로 농경지 토양(4개)과 유출수(4개) 및 상수원 유입수(2개)로 총 10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분석해 농약사용량, 잔류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된 다이아지는(살충제) 등 총 8종의 농약성분을 연 2회 조사한다.

김병서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량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친환경농업 확대에 농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 운영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제55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전주시내 곳곳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55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도 기후변화주간인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또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 함께감탄!' 해보지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구의 날 소등 행사는 일반 기업과 각 가정에서도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조명을 끄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기후변화주간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주 함께감탄 챌린지'도 진행된다.

이 챌린지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를 줄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주함께감

탄 △#전주시민함께탄소줄이기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전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QR)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청 로비에서는 폐 소형 가전제품과 폐 플라스틱 장난감 기부 행사가 진행되며, 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용 상품 판매 및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기부받은 물품은 전주시생활용센터(다시봄)로 전달돼 자원 순환 과정을 거쳐 생활용품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26개 작은도서관, 그림책 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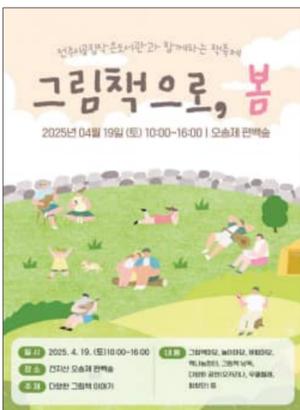
전주시민들의 독서 사랑방인 전주시 26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는 19일 건지산 오송재 판매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봄철 그림책 축제를 연다.

올해 행사는 전주시 26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주축이 돼 자발적인 행사로 꾸며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그림책 읽어주기 △악기연주 △전주교육지원청 아버지학당 공연으로 행사의 표문을 연다.

이어 작은도서관 2-3곳이 함께 운영하는 8개의 체험부스와 상시 체험마당이 운영된다.

전주시 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 관계자는 "술숙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건지산 숲속에서 책과 함께 소



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온돌 네트워크' 노인 돌봄 강화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34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노인 의료·돌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돌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온돌 네트워크'는 따뜻한 돌봄과 온전한 돌봄을 이뤄내기 위한 정기 간담회로, 6~7개 동씩 소규모 권역을 꾸려 월 1회 정기적 운영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평소 업무추진시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담당자간 열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업무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업무처리 방안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으로 매월 의료·돌봄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자유롭게 의

견을 나누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두려움 계획이다.

첫 번째 간담회인 4월의 주제는 '통합돌봄 업무는 왜 인기가 없을까'를 주제로 돌봄업무 추진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같은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온돌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소통이 강화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도서지역 수색작전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적의 도서 침투를 사전 봉쇄하고 적 침투 시 효과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관할도서 수색작전을 시행했다.

특히 청장 16일 도서수색작전 구역인 부안군 위도를 방문해 작전상황을 점검하고, 작전에 동원된 군·경 25명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또 위도파출소를 방문해 서해안 도서지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김 청장은 강명원 경감에게는 도서수색 업무 유공에 대한 표창장과 부안경찰서 안보지원협의회 김상음 회장에게는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청장은 "힘겨운 지형과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도서수색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침투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틈 없는 수색과 경계 활동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도서지역 안보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경청과 응담으로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매년 3-4월경(녹음기 이전) 도내 3개 경찰서(군산, 고창, 부안) 관할 도서 76개 중 취약도서를 선별 후 군·경 합동 수색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해 도서 점경지대의 침투 시도나 안보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명태 기자

전북,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17일 미 애틀랜타서 개막 도내 기업 11개 부스 운영 미 관세 대응 수출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진흥원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5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회로 올해 23회째를 맞이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상 경제 권으로의 도약, 한상과 함께 중소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이 모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제진흥원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미국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전북세계한상대회 사후기자회견. <사진=전북자치도>

여 경제 협력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회는 역대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개최되며, 전북특별자치도관에는 15개 기업이 참가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참가기업들은 식품

8개, 건설 및 전기 5개, 패션/뷰티 1개, 농림축산 1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특화 제품을 앞세워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계약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미 관세 여파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내 기업 11개

사에 대한 통합 홍보부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에서 정부 간 포럼(G2G포럼), 기업과 정부간 포럼(B2G 포럼)을 통해 수출 정책 활성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포럼은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 장벽 해소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기업유지지원실장은 "이번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도의 우수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JB전북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이동 라운지 '브라보 코리아 무빙라운지' 2호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외국인 고객 무빙 라운지 2호 가동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이동 특화 컨시어지 서비스

JB 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이동 라운지 '브라보 코리아 무빙라운지 (Bravo Korea Moving Lounge)' 2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2호차는 상담에 중점을 둔 1호차와 달리 이동에 특화 부여한 점이 특징. 이를 통해 언어 및 이동 불편을 겪을 외국인 고객을 위해 각종 기관 방문 시 동행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 브랜드 만족도를 높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2호는 JB브라보 코리아 안산 라운지가 위치해 있는 안산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오픈한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1호 차량은 JB브라보 코리아 부산 라운지 소속으로 부산 및 경상도 일대 외국인 거점 지역에서 홍보 활동 중이다.

전북은행은 이번 2호차에 이어 5월 중 서울 동대문외국인 영업센터에 소속 둔 3호차를 오픈 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역대 최고 92.6점 달성 기재부 평가 '상당 강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국민연금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은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공단은 전년보다 2.1점이 상승한 92.6점을 획득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이는 공단이 속한 52개 준정부기관 평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균인 90.4점보다 2.2점, 기금관리 유형 평균인 90.3점보다 2.3점을 상회하는 점

수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그간 전문 고객만족(CS) 컨설팅을 실시해 직원들의 고객상담 역량을 강화했다.

또 '국민제안, 국민연금자문단,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부터 고객 상담 빅데이터 분석과 상담 예측 모델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비약물심리지원 '치유농업' 주목

농업으로 신체·정서 치유 조현병·우울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궁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 재배, 관리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적용 결과로는 치유농업을 병행한 조현병 환자군은 기존 약물치료 중심의 병의원 치료만 받은 집단보다 음성증상이 10% 감소했고, 일반정신병리 증상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 효과도 뚜렷해 심장 안정도는 전보다 12%, 자율신경 활성도는 13% 향상됐으며,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은 각각 13%, 일반정신병리

증상은 12% 줄었다.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은 파종,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우울 고위험군 또한 치유농업 적용 전보다 우울감이 30% 감소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증가했다.

이번 실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에서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70여 명(임입·외래치료 환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임회한 가운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제 의료수가를 청구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구한 의료수가는 '작업과 오락요법', '지지 표현적 집단정신치료' 항목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과 정신건강 증진기관 연계 상호협력모형(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실증과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결과를 종합, 이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신건강 증진기관 9곳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별도로 전국 4개 권역, 정신건강 증진기관 10곳과 8개 치유농업시설 연계 맞춤형 현장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비수도권 최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비수도권 최초 2등급 품목군 임상 기반 마련, 상용화 박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비수도권 의료기관 최초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군에서 '2등급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로 운영되는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센터장 고명환)의 연구 인프라를 통해 이뤄졌다.

의료기기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GMP 인증을 바탕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임상시험을 병원 내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GMP 인증 획득을 주도한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2023년 4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제 지원으로 설립되어 젊은 임상의 의사와 학자들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GMP 인증은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앞당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고명환 센터장은 "힘들게 연구 개발한 첨단 의료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허가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이번 GMP 인증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성과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자신의 기술이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미래 의료로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전북대병원의 노력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연구를 통한 성과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예수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서비스 '최우수'

보건복지부 조사 16.5점 말기 암 환자 전인적 돌봄

예수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부문 돌봄서비스에서 최우수 점수를 획득하며 인간 중심 최상의 병원을 확인했다.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은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인적 돌봄 서비스인 호스피스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의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획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호스피스 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예수병원은 임원형 호스피스를 시작했으며,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설립 목적에 따른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섬기고 있다.



예수병원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인적 돌봄 서비스인 호스피스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 최우수 점수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예수병원>

여기에 의료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예수병원은 지난 2024년 수행한 서비스 제공·성과 점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의 전인적(인간의 심적

·心的) 요소 '지식, 감정, 의지' 균형 있게 갖춘 병원)으로 평가받으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병동 및 인력 운영, 호스피스 질 관리 △호스피스 홍보 △사별 가족 대상 기관 이용 만족도 등

이다.

특히 사별 가족 대상 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예수병원은 전국 평균인 15.5점을 상회하는 16.5점을 기록하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예수병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평안과 존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수병원은 단순히 의료적인 치료를 넘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역할에서도 환자와 가족들에게 밝고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수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들 이 마지막까지 평화롭고 존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끝자락까지 희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익산과 물류 일자리·마케팅 상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6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 공동물류·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익산 지역 내 30개 기업과 익산시청,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델과 기업 중심의 지원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다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온라인 물류센터 입점 및 운영 계획 △지원 내

용 및 절차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등이 안내 됐다.

또 이어진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였다.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관계자는 "이번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17일부터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수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익산시청 및 진흥원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K-사운드' 첫선 보인다

영화인에 효과음원 공개 음원 플랫폼 부스도 운영

소리의 고장 전주시가 구축한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이 다가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펼쳐지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K-사운드가 사용된 기생충, 오징어게임2 등을 작업한 한국 영화 음향 전문 국내대표 기업인 라이브톤(대표 최태영)과 함께하는 '영특한 대화(토코콘서트)'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홍보 부스 운영 △효과음원 시네마 공연 등 K-사운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K-사운드 행사는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산업의 이해와 확산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진흥원은 영화제 조직위와 협력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로 준비한 '영특한 대화'는 '영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대화'의 줄임말로 오는 5월 5일 오전 11시, CGV 전주교사에서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 영화 음향 전문 대표기업인 라이브톤의 최태영 대표를 초청해 최근 개봉된 '미키17'(감독 봉준호)의 음향 마스터 제작기 사례 등 영화 음향의 효과적인 구현 방법과 사운드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영화 사운드 제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참여를 원하는 영화인과 관객들은 전주국제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또 이번 영화제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이하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수입에 의존해왔던 한국 영화 효과 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 고유의 소리를 정제·가공해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한국적 전통 소리와 자연의 소리 등 총 11개의 카테고리에 약 3만5000여 건의 한국형 효과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유사 음원 AI 검색 서비스와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진흥원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서비스 중인 다양한 효과 음원을 청취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자 및 영화·영상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대중에게 한국 영화 효과 음원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 영화음악을 소재로 한 시네마 공연이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나홀간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시네마 공연은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콘셉트의 영화음악 공연으로 준비되며,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의 효과 음원을 활용한 연주도 함께 구성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효과 음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한국형 효과 음원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한 플랫폼으로, 그 가치를 비할 곳이 없다고 자부한다"면서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K-사운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www.k-soundlibrary.kr)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누리집(www.jeonjufest.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영상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전북대, '파란사다리사업' 주관대학 선정

취약계층 학생 어학연수 지원 자교생 51명·타교생 9명 선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 파란사다리 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대학에 선정됐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어학연수 및 글로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 진로 개척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2018년부터 연속적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전북대는 자교생 51명과 호남·제주권역 타교생 9명을 함께 선발해 하계 방학 기간 4~5주 동안의 해외 대학

연수 및 기업 연수를 제공한다.

참가 학생에게는 1인당 총 525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지원 비용은 한국장학재단과 전북대가 공동 부담하며, 대학 프로그램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 연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25일까지 전북대 국제협력부로 신청하면 된다.

조화림 전북대 국제처장은 "전북대와 호남·제주권역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책무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고창' 개관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저녁 늘봄 서비스 무료 제공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교 밖 거점늘봄센터가 고창에 문을 열었다.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15일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저녁늘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늘봄센터 '늘봄고창'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조민규 군의장, 김성수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늘봄고창'은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거점늘봄센터로, 오후 8시까지 운

영되며 저녁 급·간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모두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센터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요리 교실, 연극, 원어민 영어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거점늘봄센터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족하는 지역 맞춤형 늘봄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교 밖 거점늘봄센터가 고창에 문을 열었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증진 힘쓴다

폐암검진기관과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급식종사자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16일 5층 회의실에서 도내 12개 폐암검진기관과 '급식종사자 건강증진 및 폐암 검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은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고창종합병원, 부안성모병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시 각급 학교(기관)와 폐암검진기관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검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폐암검진(저선량 흉부CT 촬영) 단가 △검진비 정산 간소화 △검진 결과 보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 추가 검진 지원 안내 등이다.

이번 협약 사항은 올해 6월부터 10월 까지 계획 중인 급식종사자 폐암 추가 검진 지원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추가 검진을 희망하는 국·공·사립학교(유·초·중·고·특수)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급식종사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진(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후 총 5,700여 명의 폐암 검진을 지원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해 폐암 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현업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씨름부,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인전 2체급 석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씨름부가 지난 11일부터 전남 보성군 다향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유희승, 이희준 학생이 각각 개인전 용사급 및 역사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씨름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먼저, 용사급에 출전한 유희승(생활체육학과 4학년) 학생 선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에서 인하대 이재웅 선수를 꺾고, 본인의 생애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일궈냈다.

특히 유희승 학생 선수는 매 경기마다 특유의 끈기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강력한 상대들을 하나씩 꺾으며 '대학 씨름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역사급에 출전한 이희준(생활체



육학과 1학년) 학생 선수 역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데 성공했다.

전주대 임종길 씨름 감독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평소 씨름부를 아끼고 지원해주신 생활체육학과 교수님들의 응원 덕분에"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람중심, 자연과의조화,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서 농어촌의 지속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농어촌의 희망,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농생명산업의 첨단화



친환경 농업실현



복합 농생명융지 조성





“내면의 미로를 걷다” 정읍 달하미술관 이선 작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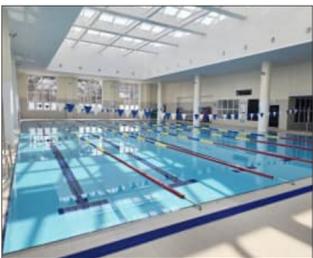
인생의 길과 내면의 미로를 화폭에 담은 이선 작가의 전시가 정읍 달하미술관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정읍시는 지역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로, 이선 작가의 ‘나를 찾아가는 길’을 오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선 작가의 개인전으로 신태인, 연지, 수성 달하미술관 세 공간에서 서양회화 작품 14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선과 색의 형태로 감정과 사유를 표현하는 추상화 기법을 통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감정과 내면의 흐름을 화폭에 담았다.

관람은 무료이며,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전시 시간은 정오를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지·수성 달하미술관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수영·헬스 한 곳에서 익산 수도산스포츠센터 운영

익산시가 수도산 스포츠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익산시는 수도산 공원에 조성된 수도산 스포츠센터를 정식으로 개관하고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설을 점검·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6주 가량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발견된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시설과 시스템을 전격 보완했다.

시는 오는 21~22일 이틀 동안 현장에서 수영 강습 프로그램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수영 강습을 시작한다.

헬스장도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익산시, 반려동물 만남의 장

익산시가 반려동물 가족을 만들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오는 19일 중앙체육공원에서 ‘2025 상반기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신을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 축산과와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고려동물병원, 사단법인 어독스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광보건고등학교와 반려동물과 학생 20여 명도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현장 입양 상담 △반려동물 무료 건강 상담 △반려동물 예티켓 캠페인 △반려용품 바자회 운영 등이다. 바자회 수익은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

보증출연금 10억으로 증액 사업규모 총 250억 2배 늘어

익산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확대, 카드수수료 지원 등 실질효성 있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배석희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례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통해 기존 출연금 5억 원을 1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사업의 총 규모도 기존 125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용자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0일부터 전년도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절차를 간

편하게 개선했다. 현장 영업 등 제한적 여건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사업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단기적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경제 회복 ‘전력투구’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정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확대

정읍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맞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먼저, 시는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업소당 위생용품과 메뉴판 등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기존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1년에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 생태계



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생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인근 등 상권활성화 구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지역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와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 이전과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앞으로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이주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물류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월명동,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최종 선정

중기부 1억 2천만 원 지원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서 군산시 월명동 일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창작자), 상인,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월명동 일원은 군산 원도심의 중심지로, 근대역사문화자원과 관광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서 군산시 월명동 일원이 선정됐다 <사진=군산시>

만 상권의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군산시는 1억 2천만 원을 확보, 오는 11월까지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기존의 단편적인 상권 지원을 넘어, 지역의 고유 자원과 특성을 살린 공동체 기반의 상권 활성화 모델

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지역 고유 자원에 대한 로컬 아카이빙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창작자)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상인·주민 참여형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상권 브랜드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 자치경찰위, 군산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

협업체계 구축유공자 표창 수여

군산시는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이하 ‘위원회’)가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6일 센터를 방문한 위원회는 먼저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와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방범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 ▲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 고도화를 진행하는 ‘군산시 안심귀가 서비스 웹’ 시연을 참관하였다.

또한 범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공자 3명(군산경찰서 오대희 팀장·관제사 심선숙·군산시 스마트도시과 정진일 주무관)에게 표창

장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시와 위원회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기관 간 연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법과 지안 관련 사안을 공유·분석·활용하는 장을 마련,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밤의 낭만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18~20일 백제왕궁 일원

익산에서 단 3일, 찬란했던 백제의 밤이 다시 깨어난다.

익산시는 오는 18~20일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야행은 ‘1400년 전 백제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익산 왕궁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환상적인 경관 조명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공연, 전시 등이 너른 왕궁을 빛과 이야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익산 야행은 8년 연속 국가유산

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우수야행 3년 연속 수상으로 국가유산청 명예의 전당 입성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야행은 기존 50여 개 프로그램에 더해 유물문양 타카 체험, 사리병 만들기 등 신규 체험 10여 종이 추가돼 더욱 풍성해진다.

또한 탐돌이, 유익한 문화해설, 최태성 역사강사의 백제 특강, 소원들 날리기 등 대표 프로그램들 역시 올해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공식 누리집 또는 익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여성농업인 삶의 질 UP! 정읍시, 생생카드 지원

총 3790명 여성농업인 혜택

정읍시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4억 9200만원을 투입,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총 3790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 농어업인이며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차 접수를 통해 3336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자를 계속해서 모집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개인당 연간 13만원이 지급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산·학·관 손잡고 식품산업 인재 양성

익산시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식품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경여자고등학교, 익산교육지원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관련 기업 등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경여고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가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진경여고는 1971년 개교한 상업계열 특성화고로, 2019년부터 학과를 개편해 카페디저트와 조리·제빵 등 식품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2위를 기록했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가능경기대회 요리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희 진경여고 교장,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식품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 식품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졸업생 취업 연계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익산시는 진경여고가 지역 산업과 교육이 긴밀히 연결된 ‘경주 기반형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농촌왕진버스’로 주민 의료공백 해소

군산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가 16일 회현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에서 60세 이상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심안·돌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6일 회현면 진료에서는 ▲예수병원(양방 진료) ▲연세대학교 스포츠재활 연구소(운동처방 및 교육) ▲관내 다목적 안전원(검안 및 돌보기)이

참여해 맞춤형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양방 진료 부문에서는 수액 처치·방사선(X-ray) 촬영·혈당 측정 등이 이뤄졌으며, 운동처방과 교육 분야에서는 1:1 기능 회복 운동 프로그램과 스트레칭 방법 안내 및 실습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시력 검안과 돌보기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2025년 ‘농촌왕진버스’는 회현농협(회현면)에 이어 5월 13일 서군산농협(옥서면)을 찾아가는 등 서군산농협에서도 관내 농촌 주민과 농업인 등 총 300여 명에게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황토배기멜론·청보리밭축제 동시수상 2관왕 영예

고창군이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멜론'과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나란히 대상을 수상하며, 농업과 관광을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 고창군은 멜론 부문과 생태관광 부문에서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황토와 해풍, 큰 일교차 등 자연 조건 속에서 재배돼, 당도 15브릭스 이상의 깊은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멜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공동선별과 유통 관리를 추진해왔다.

향후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수출 확대, 멜론 가공식품 개발 등 고부가가



고창군이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멜론'과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고창군>

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께 수상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생태관광 부문 4년 연속 대상으로, 20만 명의 청보리밭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대자연의 경관 속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다.

특히 올해는 넷플릭스 '썩속 속았수다'의 촬영지로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개최되

는 제22회 청보리밭축제는 버스킹, 보리 놀이터, 보물찾기, K-POP 랜턴댄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채워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멜론과 청보리밭 축제가 오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주신 농업인과 군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창 멜론과 청보리밭 축제를 세계 속의 브랜드로 키워나가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올해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준비 박차

26~27일 모악산 잔디광장 음악 통한 세대간 소통

2025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지난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2025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오는 26일과 27일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음악으로 엮어가는 세대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음악이라는 테마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세대간의 이야기들을 음악과 함께 상호 공감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공연존에는 첫째 날은 발라드,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도 안

에는, 이젤, 이희정밴드 키스 밴드 등 모악산에서 전파되는 힐링의 무대를 선보이고 둘째 날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브레인, 마이진, 별하, 앵두걸스 등 정통락밴드와 젊

은 트로트 공연을 펼친다.

음악의 역사와 악기해설 및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뮤직홍보관', 직접 악기를 만들어 보고 악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폼지락 폼지락~, 나도악기장인! 악기만들기,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음악과 관련된 부착형 스티커와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댄스발바닥', 직접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브레멘음악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로봇댄스', 악기전시 및 클래식을 배워볼 수 있는 '뮤즈클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쉽게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의 대표 관광지 모악산에서 음악을 통해 세대간 다양한 이해와 소통을 돕는 가슴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주민·관광객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무료 운영

부안군 농촌체험관광연구회(회장 채명심)는 오는 19일 변산면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부안의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는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직화한 농업인 자율 연구 모임체로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다.

행사는 농촌체험관광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후원하는 가운데 오리 체험으로 보리빵 만들기·청국장 만들기, 미식 체험으로 연잎밥 맛보기 등 부안 농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한지·바닝·키링 등 공예품 제작 프로그램들이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행사가 치러지는 고사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경관까지 더해져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황홀한 볼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명심 회장은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2년간 최대 600만원 오는 5월 9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로 약 11억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

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선택 요건으로 △판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동서서 등 11종의 제출 서류를 지참,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부안군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343만 5,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부안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금했다.

성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에 지정 기탁되며 산불 피해 주민의 긴급 구호, 복구 지원, 이

재민 대상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 직원이 한뜻으로 동참했다"며 "부안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동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권익현 부안군수가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저출산 해소와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



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최초 대학생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과 다자녀장학금, 대학 비전학 청년의 취·창업 학원비 등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

해 힘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지원

고창군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고창군농업기술센터실증시험포 2층 토양검정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재활용 업체에 가축분뇨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은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고창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올해 상반기 로컬푸드 출하 정기교육 성료

부안군은 16일 오후 2시 부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부안 로컬푸드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로컬푸드 출하 정기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군 로컬푸드 운영 체계를 공유하고 출하 상품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로컬푸드 자주인증제에 대비해 농가들의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와 인증 절차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서는 오는 7월 개장을 앞둔 푸드앤레포츠텐터의 운영계획도

안내했다.

부안읍 봉덕리 204-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푸드앤레포츠텐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발랑장, 카페, 스마트힐링가든,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생산·가공·판매·힐링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로컬푸드는 단순한 유통 구조가 아닌 '신뢰'와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모델"이라며 "농가들의 정성이 군민의 식탁에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 등 전략 논의

혁신정책자문위 개최 9개 사업 추진 전략 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한 2025년 '김제시 혁신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출범한 '김제시 혁신정책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2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민생복

지 △새만금 성장도시 △미래농업 △교육문화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김제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제언 등 시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은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 국도 승격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확보(수로매립)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방안 △"공

애플' 김제 농공산업 거점지구' 조성 등 총 9개 사업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제시 등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정책협업구축 청년친화도시 추진단 발대식

고창군이 16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청년친화도시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정책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군 실무지원반 및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각 부서가 현재 추진 중에 청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과제를 정리하고, 중점과제 선정, 성과분석, 조례정비 등 청년친화도시 지정 요건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귀농귀촌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실질적 제과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춘향제 교통안전, 시민 420명 솔선수범

자원봉사자 요충지 배치 6개 단체 '안전 축제' 협력

남원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교통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춘향제는 남원시자율방범연합회, 남원시민경찰연합회,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금동자율방범대, 해병대 남원전우회, 모범운전자연합 남원지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7일간 4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교통 요충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배치 지점 및 담당 단체는 새마을금고본점 사거리와 국민은행 사거리에 남원시자율방범연합회, 분수대 로터리에 남원시민경찰연합회, 구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여성금동자율방범대와 해병대남원전우회, 컨싱터리조트 앞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천주교



남원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교통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남원시>

로터리에 모범운전자연합 남원지회 등 총 6개 지점에 6개 단체가 배치된다.

봉사자들은 각 지점에서 보행자 안전 유도, 주차 및 차량 흐름 안내, 임시주차장 안내, 시민·관광객 대상 안내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원활한 축제 운영과 교통질서 유지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춘향제 기간 중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철저한 교통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단체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질서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운봉 초등생들, SW대회 대상·우수 쾌거

공동육아나눔터5호점 소속 돌봄 강화·체험형 코딩 성과

남원시가속센터 운영인 공동육아나눔터5호점(운봉)이 지난 2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사피엔스4.0이 주관한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는 꿈도담터(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과학적 사고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체험형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심화교육 후 기관별 현장 SW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에는 전국 32개 기관에서 120개팀 250명의 학생이 참가해 10개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코딩 사고력 부문에서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김영찬(운봉초 3학년)·정우석(산내초 5학년)팀이 △우수상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상 박한솔(운봉초 4학년)·박한주(운봉초 2학년)팀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가속센터는 16일 공동육아나눔터5호점(운봉)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상장 및 상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남원시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호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자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제공과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그룹 활동지원, 맞춤형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청 전 직원 '온정의 손길' 산불 피해 지자체에 성금 전달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일부터 9일간 모금활동을 벌여 총 1,900여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활동은 남원시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실로 이봉장연합회 및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 또한 동참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보였으며, 이번 성금 모금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 생계 지원, 생필품 구입 등 긴급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윤증호 오순이대덕식품 대표 순창군에 1천만원 성금 기탁

오순이대덕식품 윤증호 대표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故 오순이 여사(1938년생)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윤 대표는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아내는 생전에 '기회가 되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자주 이야기했다'면서 '고인의 뜻을 따라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아내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전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인의 고귀한 뜻을 기꺼이 실천해 주신 윤 대표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이 '귀래정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하고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순창군>

순창 귀래정 숲에서 놀며 자연 배워

'귀래정 유아숲 체험원' 개장 전문 지도사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신체 발달을 돕는 '귀래정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했다.

군은 순창읍 행복누리센터 뒤편 귀래정 일원에 5,000㎡ 규모의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체험원에는 학습장과 데크, 야외 테이블, 벤치, 화장실 등

기본 기반시설은 물론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됐다.

특히 군은 전문 유아숲 지도사의 지도 아래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계절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귀래정 유아숲체험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숲 지도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활동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까지 하루 2회씩 사전 예약제와 데크, 야외 테이블, 벤치, 화장실 등



완주군청 직장동아리 '맨발청춘' 만가리 황토길 주변 환경 정비

최근 꽃샘추위에도 맨발걷기에 딱 좋은 곳이 있어 주목된다. 완주군청사와 모아미레오센터앞시가지에 있는 산책로가 그곳이다.

완주군청 옆 작은 야산 만가리는 맨발걷기 길에 주민이 먼저 만들고, 완주군이 확장시키면서 유명해졌다.

인근 거주 주민들, 멀리 전주·익산 주민들은 물론, 완주군청·완주교육지원청·농협은행완주지부·완주산림조합 등 주변 기관 직원들이 점심 식사 후 잠시 걸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됐다.

이처럼 만가리 맨발걷기 길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숲은 조력자들이 있다.

완주군청 직장동아리 '맨발청춘' 회원들은 평소 점심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맨발걷기 길을 하면서 황토길과 주변에 있는 낙엽은 물론, 지난 여름내 맨발걷기 길 주변에 심은 꽃과 어린 나무에 물주기, 잡초 제거를 하는 등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회원들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만가리 맨발걷기 환경 정비 및 홍보 활동을 벌이며, 만가리 황토길 알리기에 주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새벽, 회원들은 지난 겨울 만가리 맨발걷기 길과 주변에 떨어져 있던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을 1톤 분량 정도 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비 활동에 모든 힘을 보탰다.

만가리 맨발걷기 길은 지난 2023년 5월 용진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군민의 날 행사 당시 지역 주민들이 군청사와 행사장인 축구장 야간에 연결로를 만들어 조성됐다.

당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길을 산책로로 이용하며 뜻있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맨발걷기 길로 조성했다. 이후 군의 지원을 받아 정비 후 타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맨발걷기 길로 각광받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옹기체험관, 체험형 관광 명소 '인기'

전통문화 체험·관광 결합 연간 6천명 찾는 도자 체험

순창군 민간위탁시설인 옹기체험관이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군 1호 명장이자 대한민국 향토명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권운주 관장이 운영하는 옹기 체험관은 도자기의 전통적 제작 방식과 예술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간 약 6,0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타래쌓기, 옹기 판 접시 만들기, 옹기불레 체험, 세라믹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학생 단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체험 중심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발달된 옹기체험관은 한국관광공사 및 코레일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순창 관광투어 프로그램과



순창군 민간위탁시설인 옹기체험관이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월 평균 500명, 연간 6,000여 명의 체험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여행사 등에 직접 체험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전국 시군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대면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 기반의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별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시즌에는 단체 체험 문의가

집중되며, 실제 예약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권운주 명장은 "옹기체험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통의 아름다움과 그 제작 과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옹기체험관은 연중 운영되며, 체험 예약 및 문의는 전화(063-652-4365)를 통해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아동친화도시' 완주, 5월 3일 어린이날 대축제

군청사 어울림마당 일원 코스프레 참여 사전접수

오는 5월 3일 완주군청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어린이날 대축제가 열린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어린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미래의 완주 히어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코스프레 어린이 500명을 사전접수하고, 패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방문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술 및 버블공연, 가족뮤지컬 신공주, 아동권리채 전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험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장을 미래, 행복, 도시 존으로 나누어 미래존에는 어린이에게 미래에 요구되는 디지털 및 과학기술, 창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존에는 다양한 놀이체험을 통해 행복을 맘껏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도시 존에는 다양한 정책소개 및 참여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녹색환경을 위해 텀블러 지참 시 어린이, 가족에게 커피, 음료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은 완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그림그리기 대회(300명),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운영하는 아동권리골든벨(600명), 그리고 어린이 바둑체험 및 대회(100명)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완주북학지구 누에에서는 섬유·도예·목공 프로그램, 채워기는 미술관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사전접수와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www.wanju.go.kr/wanjuccf)를 참조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올해도 혜택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상

완주군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를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해에는 1,200여 곳이 지원받았다.

카드수수료 신청 대상은 완주군 내에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 중인 2024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카드수수료의 0.5%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가 어려운 이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신명규(쥬신명산업 대표, 완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상한액 확대 후 '최고' 1천만원

완주 삼례읍 출신의 쥬신명산업 신명규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채 취지에 동참하며, 완주군에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지난 15일 완주군청을 방문한 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고향 사람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부 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대 금액 기부 사례다.

신 대표는 "평소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



심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고향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쥬신명산업은 본사를 경기도 시흥시에 두고 있으며,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탄소중립 선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장수군이 지난 3월 제정된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일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장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장수'를 위해 군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지양하고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앞으로의 공공기관 1회용품 규제 관련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야외 행사 시 음수대 설치 및 개인 텀블러 지참을 유도 △내부 회의·행사 시 1회용컵 및 플라스틱 생수병 제공 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주니어보드-아산시 지자체 간 혁신 네트워킹 구축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지난 10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신설된 아산시 혁신 모임 3기와 함께한 지자체 간 혁신 우수사례 공유 네트워킹 행사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농촌 특성이 강한 임실군과 도시 중심지인 아산시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만남의 장으로, 양 지역이 각자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겪었던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행정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 임실군 주니어보드는 '꿀팁 모음집'과 서두의 모든 것' 등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업무방식의 전환과 혁신 행정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1년 8개월간 쌓아온 체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번 네트워킹이 양 지자체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모델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각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임실군 주니어보드와 아산시 혁신 모임이 도출한 우수사례 및 개선 방안은, 향후 다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확대와 혁신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방문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가 국내 산림기술 및 제도 교류를 위해 진안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을 찾았다.

진안군에 따르면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대표 에뮈 카플란을 비롯한 임원진과 농업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기술 시연을 체험했다.

방문단은 진안 부귀면 신정리 실습실에서 진행된 벌채 및 파쇄 작업 시연에 직접 참여하며 국내 산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진안교육원의 숙박·교육시설을 둘러보며 산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번 일정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간 지난 2023년 10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산림 정책 및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산림협력 강화는 물론, 진안군의 우수한 산림 인프라가 국제 무대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치유의료관광 국제화 시동

몽골 유력 지방정부 내방 치유의료-웰니스 관광 체험 양국 협력 방안 논의

전북 진안군이 몽골 유력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해 치유의료관광 분야의 국제 무대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진안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몽골 남고비 아이막(남고비주) 주도인 달란드자가드(Dalandzadgad) 시에서 척트 데네더르지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의료진 등 8명으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을 맞이했다. 군은 이들과 함께 치유의료 및 웰니스 관광 기반 확대를 위한 현장 체험과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진안군과 대자인병원이 체결한 치유의료-웰니스 관광 협약의 후속 조치로, 몽골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 이후 대자인병원은 몽골 현지에서 원격진료 사무소를 설치했고, 진안에서 생산한 한방 다이어트 한약과 화장품이 수출되면서 현지에서의 치유 자원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몽골 방문단은 진안홍삼, 한방의료,



전북 진안군이 몽골 유력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해 치유의료관광 분야의 국제 무대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진=진안군>

치유형 웰니스 프로그램 등 진안의 주요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진안만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둘러보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16일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척트 데네더르지 시장이 진안군청에서 공식 간담회를 갖고,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농업 기술 협력, 의료·관광 분야 협업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몽골

주요 인사 대상 치유관광 유치 기반 마련 △웰니스 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국제 협력의 폭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치유-웰니스 관광은 진안군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지역 자산"이라며 "몽골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진안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3도3군, 쏘카 타고 관광한다

관광협-(주)쏘카 업무협약 축제 기간 최대 70% 혜택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이 함께하는 '3도3군 관광협의회'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와 손을 잡았다.

3도3군 관광협의회(사무국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쏘카 카셰어링 본부 안동화 사업그룹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연계 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및 할인 혜택 제공 △공동 홍보활동 추진 △시속기하는 한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유차를 활용한 지역 간 관광 이동 편의 제공' 항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와 영동, 금산 지역 대표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쏘카를 타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이용 요금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축제 기간을 제외한 5월, 7월, 8월, 11월에는 쏘카 이용 금액의 5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관광 연계의 시

작이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해법이 될 거로 본다"라며 "3도3군 각 지역 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여행객 수요를 만족시켜 체류 분위기 조성, 관광 소비 확산이라는 결실을 거머쥘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2025 임실N페스타' 오는 5월 3일 막 올린다

2025 임실방문의해두번째 축제 3~5일까지 오수의견공원에서 개최

2025 임실방문의해와 만나는 두 번째 축제이자 1500만 반려인들을 위한 '2025 임실N페스타'가 가정의 달 5월에 화려한 막을 올린다.

군은 오수 의견 설화가 깃든 오수의견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5 임실N페스타'를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모든 것에 초

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 먹거리로 마련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군 반려동물 패션쇼 △반려동물 토크쇼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추모공원을 운영 중이고,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인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다목적 공원, 세계 명경과 함께 교육·체험·관광 기능이 복합된

반려동물 관련 미래산업을 선도할 세명경견테마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성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N페스타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반려 가족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1500만 반려인의 성지가 될 임실에서 열리는 임실N페스타를 세계적인 반려동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베트남 현지 방문 계절근로자 면접

장수군은 관내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를 방문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베트남 남딘성과 계절근로자 선발 및 송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장수군에 배치될 계절근로자 20명을 선발하기 위해 장수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남딘성 내

무성 및 일자리센터 담당자들과 업무협약 관련 면담을 가졌다.

업무협약 면담에는 응우엔 두안 성 남딘성 내무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향후 인력 선발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면접은 150여 명이 지원했으며 남딘성 기준에 적합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6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및 신체능력 테스트, 심층면담을 거쳐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 단단해지기를 희망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오는 22일 봄 음악콘서트

진안군청광장서 지역활동음악가무용단등 다양한 장르 무대 선배



진안군이 오는 22일 저녁 6시 진안군청 광장에서 2025년 봄 음악콘서트 '함께해봄'을 개최한다. 공연은 백운면 전라좌도농악전승회와 진안문화의집 실버합창단의 무대로 시작된다. 특별무대로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수준 높은 한국무용 공연이 무대를 품격 있게 꾸며줄 예정이며, 소프라노 김나라, 보컬 강유진, 색소폰 주창근 등 지역 대표 음악가의 감성 가득한 무대가 준비됐다. 이어 진안군립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이고 진안어린이합창단이 K-POP 댄스 퍼포먼스로 큰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청가수 재즈상회와 요들누나는 유쾌하고 예뻐

지 넘치는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종길 문화체육과장은 "세대를 아우르고 장르를 넘나드는 이번 '함께해봄' 콘서트를 통해 군민 모두가 즐기고 공감하는 따뜻한 봄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원광대학교, K-치유힐링 업무 협약

임실군과 원광대학교 K-치유힐링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K-치유힐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

원광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이진관 임실 부군수와 김동훈 주 K-치유힐링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K-치유힐링 관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 공동개발 △K-치유힐링 관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등이다.

특히, 원광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5

월에 열리는 2025년 임실N페스타에 HUSS 비교과 프로그램인 '맹방이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5개 대학 40여 명이 1박 2일 동안 임실군에 머무르며 반려동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치유힐링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진관 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의 성공적인 운영과 치유힐링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임실군 반려동물 산업과 원광대의 K-치유힐링 분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자랑스러운 기업·브랜드 대상 수상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자랑스러운 기업(기관/인물)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 자랑스러운 기업&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우수·유망 기업(기관·인물·브랜드)의 특색있는 경쟁력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해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공공기관과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등 총 54개 기관에서 수상을 했으며, 진안군은 생태관광 치유도시 실현으로 군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자랑스러운 기관 지방자치 부문 대상은 군정을 위해 주민과 의회, 공직자가 모두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무주군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선다.

지난 16일에는 'hy(한국아쿠르트) 우아점(대표 김재용)', '사회복지법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평)'와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기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계획과 내용,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및 조치 방법, 그리고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는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 및 어르신 가정에 우유나 아쿠르트, 주스 등 건강 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 주민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민관이 손을 잡게 된 만큼 고독사 위험자를 보다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익산 금마면, 어르신 염색 봉사**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구·나영근)는 16일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염색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동편경로당 △서편경로당 △한울아파트에서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염색을 해드리고,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확인했다.

또한 ‘뷰티명가 미용학원’에서도 머리 손질로 봉사에 동참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힘든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동상면 주민·유관기관,
대아저수지 수변 환경 정화 작업**

완주군 동상면의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들이 16일 대아저수지 수변의 환경정화 작업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동상면의 사회단체인 이장연합회·새마을부녀회·주민자치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체육회·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는 물론 관내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탐방로와 저수지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변 위험 수목을 정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경암동 지사협,
중증질환자 성인 기저귀 지원**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가 ‘따뜻한 손길, 나누면 기적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중증질환, 장애, 치매 환자 등 가정 내에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10가구를 대상으로 성인 기저귀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지난 15일 이뤄졌던 전달식에서 성품을 전달 받은 가족은 “매번 기저귀 구매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도청 빙상팀 최지현·노아름 국대 선발

**여자쇼트트랙국가대표
전북 빙상 저력 입증**

전북특별자치도청 빙상팀 최지현·노아름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1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크장에서 열린 2025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2차전 여자부 경기에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선수



최지현 선수

트랙 선수 최지현과 노아름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선발전은 전국에서 선발된 여자

자부 최정삼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졌다. 최지현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주력으로 꾸준히 상위권



노아름 선수

을 유지했다. 노아름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코너주행 능력을 앞세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두 선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빙상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쌓아왔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보이며, 향후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두 선수가 전북 빙상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찾은 미국 청소년들 “K-급식이 제일 기억나요”

미국 청소년대사단현장체험

전북을 찾은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2박 3일간 전북 구석구석을 누비며 전통문화 체험,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K-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탐방 프로그램」을 전주, 군산, 고창 일대에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내 3개 주(뉴욕, 로스앤젤레스, 몬타나)에서 선발된 24명의 청소년

대사를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북의 지역문화와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군산에서 전북의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에서 온 틸튼 라일라(Tilton Layla, 17)는 “처음엔 식판에 받는 방식이 조금 낯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며 먹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한국 학교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을 찾은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2박 3일간 전북 구석구석을 누비며 K-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사진=전북국제협력진흥원>



남원 금동, 착한가게 6000호점 단체 가입식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 주관, 지난 16일,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착한가게 6,000호점 단체가입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의미있는 나눔 참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착한가게 6,000호점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로, 금동 소재 △공설모터 △금동호박터 △남원시 윗칠공예관 △남원어시장 △남원장식 △놀부떡방 △맑은뜰 △맛고기 △바다로마트 △새집 △서울유 리샷시건업 △센웨이일등보일러

△에인공에서 △에촌김밥 △중마해물찜 △천호축산 △치움 △카페 온정 △크로커다일레이다 △현인건설 총 20개 점포가 새롭게 착한가게에 가입하여, 현판을 전달했다. 최인술 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전북 착한가게 6,000호점 돌파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 복지관, 어르신 재배 허브 2000개 나눔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허브가 정읍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향기를 전했다.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관장 유두희)은 지난 15일 연차아트홀 앞에서 2025년 상반기 반려식물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허브화분을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고 있는 이 나눔

행사는 올해도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비허브, 한잎 세이지, 송엽 등 세 가지 허브로 구성된 포트화분 2000개가 준비됐으며, 4개씩 1세트 총 500세트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됐다. 행사 현장에는 시민들의 감사와 감동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한 한 시민은 “어르신들이 정성껏 키운 허브를 받게 되어 기쁘고, 그 마음을 생각하며 소중히 잘 기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원광새마을금고,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익산시는 원광새마을금고가 시정을 방문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된 후 피해 복구와 긴급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광새마을금고는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산불 이재민에 1천만 원 성금**

전북에너지서비스(주)(대표 서경석)는 지난 15일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날 서경석 대표는 정읍시청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서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이 깊이 공감하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장수 천천면 지사협 조구덕위원장,
취약계층 아동위해 성금 기탁**

장수군 천천면은 지난 15일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구덕 민간위원장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성금은 천천면 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 30명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조구덕 위원장은 “아동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천천면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一事一言〉



‘12.3 윤석열의 난’ 진압, 이제 야당과 시민의 시간(2)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그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식의 통치처럼 기존의 반공, 친자본 우익의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집권 1년 차 정도가 지난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통치는 봉건 파시즘의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인 국민의 힘 지도부를 완전히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재편하고, 야당 세력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반국가, 친북세력으로 몰고, 야당을 포함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을 적으로 취급하는 ‘공산전체주의’ 담론을 꺼냈다. 사실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가족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적인 정당정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서, 그의 통치는 봉건적인 것과 파시즘적인 요소가 결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교 선후배를 국방장관, 계열 업무를 직접 수행할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통상 보수 세력의 통치에서 현저히 벗어났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전두환, 박정희의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승만 시대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승만 정도의 카리스마가 발휘될 수 없는 시대에, 더구나 과거의 이력과 업적을 보더라도 도저히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없는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어떻게 이승만식 봉건 파시즘을 구사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24년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식으로 성장이나 안보를 들먹이면서 야당이나 비판세력을 적으로 돌릴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사실 비상계엄 선포는 그가 처한 정치적 딜레마를 파국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모든 극우 파시즘 세력이 그렇듯이 그의 집권 이후 여러 연설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국가 운영의 목표나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발탁한 국민의힘은 그의 지도력보다는 오직 대선 승리만을 고려했다. 국민의힘과 그 지지기반인 한국의 기독교 세력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국가 운영의 목표가 없었다. 즉 총선 승리와 다음 대선의 승리를 통한 재집권, 나아가 계속되는 집권만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래서 윤석열의 봉건 파시즘적 통치에 대해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전혀 비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그런 통치방식 때문에, 그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까지 깊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했고, 그 이후 국가 운영은 더 심한 장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일방적 명령주의와 엘리트주의, 나르시시즘의 틀에서 평생 살았던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계에 빠져 총선 패배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부정선거와 야당의 음모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장 최악의 방식의 상황인식이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이 지속된 것은 사실 윤석열 개인이 일차적으로 잘못 선택한 비

상계엄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한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을 겪고서도 결코 반성과 자기 변신을 하지 않았고, 건강함 보수로 정체성을 수립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것이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내란은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보수우익의 통치 능력, 국가 운영 능력 부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의 모든 답론은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20세기 군사주의 파시즘, 19세기 왕당파의 논리였다. 그래서 어제 현재 판결에서 집약된 내란 진압은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또다시 19세기, 20세기가 남긴 쓰레기와의 싸움이다.

이번 윤석열 내란 진압은 작가 한강의 말대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 전두환 군부의 5.18 쿠데타와 학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의 역사가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병사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계엄군을 몰로 막은 국회 보좌관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탄핵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머리와 가슴에 5.18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재의 탄핵 인용으로 ‘12.3 윤석열의 난’은 진압되었다. 그런데 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탄핵 결정이 이

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바로 내란 지지, 동조 세력의 힘이 한국에 견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최상목 등 한국 최고 관료 엘리트들은 국가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부문을 형편없이 망가뜨리고도, 지난 122일 동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준 책임 주체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이번 헌재의 국회 측 변호인 대표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들 내란지지 세력을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 이후 남은 ‘잔불’이라고 묘사했지만, 그들은 ‘잔불’이 아니라 곧 닦질 대신에서 또다시 집권해서 민주주의의 성과를 모두 후퇴시킬 수도 있는 마그마에 가깝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지방의원 일탈 행위 단호하게 조치하라

최근 전북 도내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단순한 도의적 비난을 넘어 생활정치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갇아먹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고창군의회 A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의 책임은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의 대응이다. 당사자의 부인과 변명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과 의회의 침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이미 조사를 마쳤음에도 징계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단순한 녹장 대응이 아니다. 사실상 방조와 공모의 구조가 지방의회와 정당 조직 내부에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가 도민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의회 A 의원 사건은 방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해와 올해 전북도의회 특검업자 사업수주 의혹, 군산시의회의원의 성희롱 발언, 전주시의회의 위유성 연수, 그리고 이어지는 다양한 품위 손상 행위들은 지방정치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는 구조적 문제이며 정치권 전반의 윤리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 현장의 최전선이다. 이곳에서조차 윤리와 책임이 실종된다면 도민은 과연 무엇을 믿고 정권교체를 기대하겠는가. 중앙정치가 아무리 변화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지방정치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윤리의식이 결여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답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책임을 지는 공직윤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지금 정국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를 향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은 헌정질서 회복을 통한 더 나은 정치,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정당 세력이 가장 하부 조직 내부의 썩은 뿌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 변화와 혁신을 외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 자리는 권력이 아닌 무한 봉사의 자리이며 특권이 아닌 도민에 대한 헌신의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두 손 놓고 침묵해서는 안된다. 고창군의회 A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일탈 의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징계에 착수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 상실은 곧 정당 전체의 도덕성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자격을 얻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문화재 열전



세전리 석불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산17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민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8626-6049
장수지국 010-5312-7293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 나희덕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술안룩파리가 숲을 휩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 서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스치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어낼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병들고도
남는 게 있다면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의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마디마디 세우고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빛마저 굽습니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앞을 물들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

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예술·역사·교육 품은 도시로

문화도시 꿈꾸는 정읍시

시립미술관·박물관서 문화예술 전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전통 계승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부관아 복원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 큰 호응

정읍시가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견과 역사문화 자원 보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특별 전시를 비롯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과 고부관아 복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까지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정읍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편집자주

시민과 예술이 만나다 '집으로 가는 길_귀로II'와 '사계산수' 전시

정읍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시를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시립미술관에서는 출향 작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정읍과의 인연을 되새기는 '집으로 가는 길_귀로II' 전시가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평면·체 작품 68점과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13점이 함께 전시되며 미디어 드로잉 '소원풍등'과 투병 컬러링 '내가 살던 고향은'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시에서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어 시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토림 김종현 작가의 '사계산수, 자연을 그리다' 전시가 진행 중이다. 설경산수화의 대가로 알려진 김종현 작가의 작품은 박물관 내 새롭게 조성된 '정읍 서화실'에서 열리는 첫 교체전으로 의미가 깊다.

특히, 전통 회화와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각적 흥미를 끌고 있다.

익산시는 향후 석지 채용신, 소공 이명우 등 정읍 출신 예술가의 작품과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지속적인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전통문화 계승의 거점 마련

시는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에 나섰다.

총 100억원을 투입해 신정동 한국가요촌 달하 부지에 들어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기존 전수회관은 노후화되고 규모가 협소해 정음농악, 수간춤, 전통술 담그기, 악기장, 자수장 등 다양한 전통 기술과 예술을 전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건립될 전수교육관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수교육관은 단순히 교육 공간을 넘어서,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전승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부관아 복원 본격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출발점인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그간의 학술대회와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고부초등학교의 이전을 위해 정읍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고부중학교 부지에 고부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고 고부관아 터를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존 고부초 부지에는 고부관아 복원이 진행되며, 이 공간은 단순한 유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교육과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고부관아를 중심으로 만석보 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정읍시의 '혁명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고부관아 복원은 단순한 유적 재현이 아니라,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과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부터 인재 육성까지 장학사업 '전방위 지원'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



이다. 먼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을 위한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생에게는 교과 수업 보강과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대학 신입생과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도권 장학생 운

영과 청년취업 시험준비반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이 같은 교육정책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역사·문화·교육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시는 이번엔 추진하는 예술 전시, 전통문화 계승, 역사 복원, 장학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품격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무형유산과 역사 자원을 보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은 예술과 전통,

혁명과 교육이라는 풍부한 자산을 가진 도시"라며 "이 소중한 자산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와 문화, 교육이 살아 숨 쉬는 정읍시의 행보는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외부인에게는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민 기자